

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 포 일시	2021. 5. 6.(목) 11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(044-215-4710)	담당자	이용준 사무관 (cjeye86@korea.kr) 권용준 사무관 (kwon54yj@korea.kr)

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19bp로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

- 우리나라 국채(외평채 5년물 기준)에 대한 CDS(Credit Default Swap, 신용부도스왑) 프리미엄이 5.5일(뉴욕장 기준) 19bp(1bp=0.01%p)를 기록하면서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*를 경신하였다.

* 사상 최저는 '07.4월 14bp이나, 당시 CDS 거래량이 적어 의미있는 수치로 보기 곤란

* 직전 최저치(20bp)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'20.1.17일 처음으로 기록

-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.
 -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통용된다.
-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'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,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57bp('20.3.23)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.

- 올해 1분기 중에는 22~25bp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.

* 韓 CDS 프리미엄(bp, 5년물) : ('17.9.27일)76 ('18.1.16일)42 ('19.3.19일)28 ('20.1.17일)20 ('20.3.23일)57 ('21.5.5일)19

-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세계 국가 중 17위로,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,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(23bp)보다 낮고, 캐나다(18bp)와 유사한 수준이다.

* 주요국 CDS 프리미엄(5년물, bp, 5.5일 기준, 불룸버그) : (스위스)7 (美)10 (獨)10 (英)12 (濠)15 (日)17 (캐나다)18 (韓)19 (프랑스)23

- 금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 투자자 등의 긍정적 시각이 특히 부각된 결과로 평가된다.

- 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는 등*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.

* 주요국 증시 상승률('21.3말대비 5.5일, %) : (다우)+3.8 (나스닥)+2.5 (S&P)+4.9 (유로 Stoxx)+2.1 (日)△1.3 (中)+0.1

* 美 10년물 국채금리(%) : ('20말)0.91 ('21.1말)1.07 (2말)1.40 (3말)1.74 (4말)1.63 (5.5일)1.57

- ② 특히,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, 최근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-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△1.0%로 G20 국가 중 3위*를 기록했으며,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로 '19년(12위)에 비해 2계단 상승**하였다.

* 주요국 '20년 성장률(%) : (中)2.3 (터키)1.8 (韓)△1.0 (美)△3.5 (日)△4.8 (獨)△4.9

** 우리나라 경제규모 세계순위(IMF) : ('15)11 ('16)11 ('17)11 ('18)10 ('19)12 ('20)10

- 특히,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(속보치)는 전기대비 1.6%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큰 폭 상회하였고, 당초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前 수준('19.4/4)을 회복하였다*.

* 성장률(전기비, %) : ('20.1/4)△1.3 (2/4)△3.2 (3/4)2.1 (4/4)1.2 ('21.1/4)1.6

* 당초 국제기구·IB들은 1분기 1% 내외 전망, 2분기에 위기前 수준 회복 예상

-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연이어 상향 조정**하고 있다.

* '21년 韓 성장전망(%) : <IMF> ('21.1)3.1 → ('21.4)3.6 <OECD> ('20.12)2.8 → ('21.3)3.3 <JPM(4.27)> 4.1→4.6 <Barclays(4.27)> 3.7→4.1 <Citi(4.27)> 3.3→3.6 <SC(4.27)> 3.2→3.9

- 최근 유명 국제금융시장 분석가는 한국경제가 이번에도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나라 보다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, "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국('teflon Korea')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였다.

* Forbes(4.30일), "South Korea is doing it again: confounding the skeptics."

③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도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.

- 해외수요와 세계교역이 급감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('20.5~'21.2월)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,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*도 '21.4월말 4,523억불로 세계 9위 규모다.

* 외환보유액(억불) : ('20말)4,431 ('21.1말)4,427 (2말)4,476 (4말)4,523 <사상 최대>

- 국가신용등급의 경우에도,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,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의 등급*을 유지하고 있다.

* 우리나라 신용등급 : (S&P·무디스)AA <상위 3번째>, (피치)AA- <상위 4번째>

- 최근 S&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, "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"고 평가하였다.

* S&P(4.27일) : "Korea's strong external metrics are an anchor for the sovereign rating."

④ 우리나라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도 활발하다.

-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 흐름*이 나타나고 있다.

* 外人 증권자금 순유입(조원) : <주식> ('19)1.6 ('20)△24.4 ('21.1-3)△9.4 (4)0.7
<채권> ('19)9.2 ('20) 24.7 ('21.1-3) 19.3 (4)3.3

-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양호한 금리조건으로 원활*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

* 국내 금융기관기업 외화채권 발행규모(공모기준, 억불):('19)256 ('20)238 ('21.1-4)175

□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.

-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, 내수와 수출,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.
- 코로나19, 美 인플레이션,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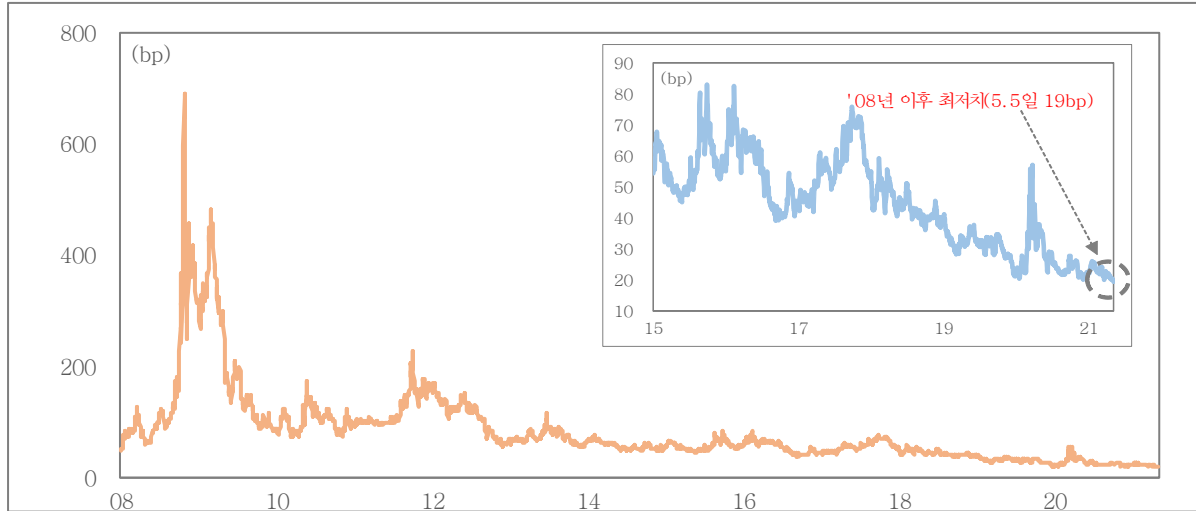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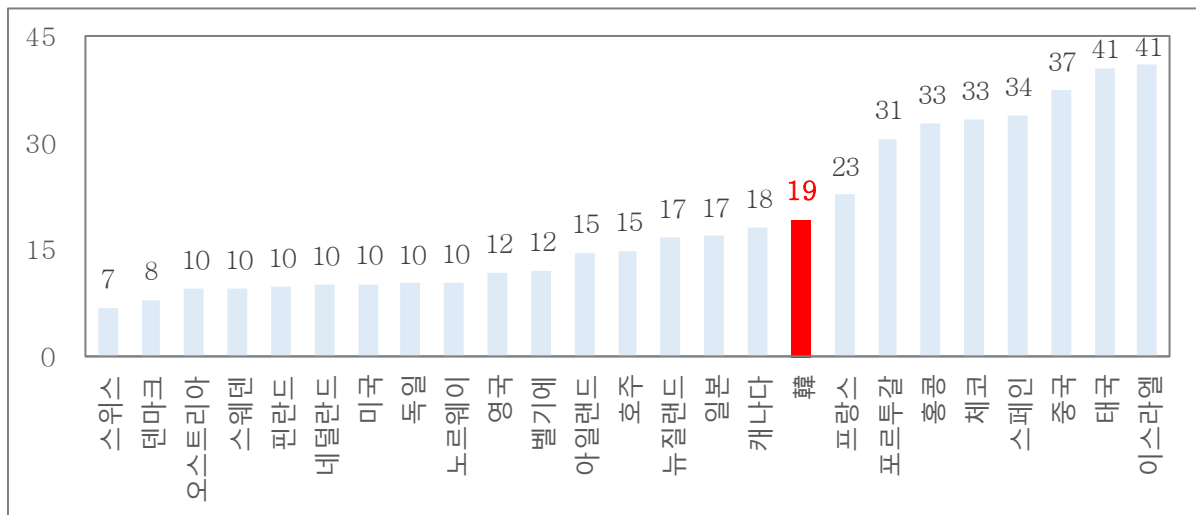
참 고

CDS 프리미엄 관련 통계 (자료: 블룸버그)

① '08년 이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



② 주요국 CDS 프리미엄 비교 (5.5일 기준)



③ 연도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최고/최저

(bp)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
최저	47	85	73	94	56	55	48	46	39	42	36	27	20	19
(일자)	(1.2)	(12.24)	(4.14)	(4.6)	(11.29)	(12.18)	(12.5)	(5.25)	(9.8)	(3.17)	(10.1)	(11.5)	(12.3)	(5.5)
최고	699	465	170	229	171	117	75	83	82	76	59	41	57	26
(일자)	(10.27)	(3.5)	(5.25)	(11.4)	(1.9)	(6.24)	(2.4)	(9.28)	(2.11)	(9.27)	(2.9)	(1.3)	(3.23)	(1.18)